

序文

禮安縣監諱處厚公之修譜在於崇禎甲申後百有八年辛未八月也實四門進士公派修譜之蒿矢也當時則交通專賴六足郵政雖千里之遠但是徒步矣故其譜之內容也詳於隣近疎於遐遠勢固然也然而叅照璿源世系證於國乘上系昭昭者自尚書歸菴公諱權歷正郎公諱壽仁牧使後堂公諱昌厚及縣監公凡此數三先祖當代勲舊大家較閱古籍有何難哉故歷代悉備其後百年庚戌譜再作而俾比前譜收錄頗詳然在於宗支頗多疑問處而後七十年己未又三十年己丑譜三四作亦皆倣庚戌之譜或詳或疎不無病焉皆緣於交通及郵便之不圓轄故也故單入則記之不入則己之偏於貞齋公與諫議公之裔焉所謂世譜則世譜矣不過於一部派譜矣今年甲子距己丑三十有

서문

예안현감 휘 처후공이 보첩을 편수하기를 승전감신년 뒤 백八 년되는 신미년 八월이니 실로 사문 진사공파 수보의 처음이다 당시 에 교통은 오로지 말에 의존하였고 우편행정도 비록 천리면적이 라도 다만 걸어가서 전한고로 그 보첩의 내용이 가까웁 곳은 자상 하고 먼 곳은 자상치 못하니 그때의 형편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선 원세계를 참조하고 국사를 고징하여 보면 상계가 소소한 것은 당 시 판서 귀암공 휘 권으로 부려 정랑공 휘 수인과 목사 후당공 휘 창후와 현감공에 이르러 수보되었으니 무릇 이러한 선조들은 당 래의 흉구대가로서 옛날 서적을 삼고하는 데 무엇이 어려웠을 것 인가?

그러므로 역대가 잘 갖추워 있고 그 뒤 백년인 정술년에 보첩 이 두번째 출간하여 전번 보첩에 비교하여 수록되기는 자상하나 종손과 지손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많으며 뒤 칠십년인 기미년과 삼십년이 지낸 기축년에 보첩이 세번과 네번에 걸쳐 출간되었으 나 다 정술보에 의거하여서 후 자세하기도 하고 혹 성그러서 완 전하다고 할 수 없으니 다 교통과 우편이 원할치 못한 소치이다 그러므로 수단이 들어오면 기록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말아서 편 벽되어 정재공과 간의공의 후예에만 치우쳤으니 세보는 세보이로 대 一부 파보에 지내지 않았다 금년 갑자년이 기축년 뒤로 삼십五년이요 선조 사문 진사공의 년대 八백여년이 되는지라

五年矣先祖四門進士公之年代八百有餘年矣往歲壬戌之春倡論總譜之刊行公議歸一以不佞猥擔譜役於是廣蒐前代之譜與家乘探問各處散在宗親之有證而漏譜者然吾朴氏麗億之數布在八域其間滄桑之變也兵革之禍也盛衰之數也可勝言哉雖欲不洩一戶一人然豈得哉且今日之便利居於京畿者暗於關東居於湖南者疎於嶺南勢亦然矣昔孔夫子有杞宋無徵之言雖曰本宗亦無證則難記良可歎也今茲大譜悉依前代四譜中間補增則且蒐考證與派譜而收錄焉夫人不涉難則智不明物不受變則材不成中間小小雜議卒成大譜之機我祖之靈在於冥冥之中降嘏福而然耶今者哀成總譜實曠世之舉也凡吾同譜之人勿以我執而恕人以孝悌相勗以忠厚敦睦則亦可嘉也亦幸莫甚焉今之宗人緣

저번 임술년 봄에 총보간행을 하자는 말이 나와서 공론이 그러하기로 하여 불초나로써 외람되이 보역을 맡기어서 이에 전대의 보첩이나 가승을 훑어 구하여 드리고 각처의 흠여거 있는 종친의 증거있으나 각보되니를 차졌으나 우리 박씨 많은 수가 八도에 넘여 있어서 그동안 상전벽해의 변동과 권리의 화와 성취의 자점을 어찌 다 말할수 있으랴 그리하여 비록 한호 한사람이라든 배놓치 않고거 하나 어찌 그리 되겠는가 또한 오늘날의 편리하므로도 경기도에 사는니는 관동지방에 생소하고 호남에 사는니는 영남에 생소하니 형편이 또한 그러하다 옛적에 공자께서도 기승의 징거 없음을 말씀하였거니와 비록 본종이라든 또한 증거 없으면 기록치 못하였으니 진실로 가관할 일이다 이제 이 대보도 다 전대 四보를 근거로 하고 증간의 보증한 것은 고증과 파보를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무릇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지혜 밝지 못하고 물건이 변형이 없으면 재목이 못되니 종간의 소소한 말성있으므로 해서 골에 대보를 작성한 계기가 되었으니 우리 선조의 영훈이 명명한가에 우리에게 제시면서 큰 복을 내리심일까? 이제 대보를 간쉴케 되니 실로 전대에 없는 일이다 무릇 우리 등보한 사람은 나의 고절을 버리고 상대를 용서하며 효제로써 서로 힘쓰도록하며 충후 돈목하면 또한 아름답고 행복이 이이상 없으리라 이제 종인들이 생계에 따라

於生計所居所行相殊各異然自祖宗視之則均是同一子孫所謂一視同仁者也焉有親疎之理焉有厚薄之差哉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此乃人之秉彝極天罔墜者也自書契以來在國王家之系統與國之大小事筆之於書者謂之史中古以來私家之系統與家之大小事筆之於書者謂之譜化家爲國則譜爲史國亡爲家史爲譜史與譜在於國與家之分矣故吾朴氏在於新羅載在國乘在於高麗以後則載在家譜然而史則國人創學校而攻之譜則等閒此乃不知源泉而欲知江河也惟願吾同宗之人務爲知有根而有枝有葉有是祖而有子是孫此乃人秉彝極天罔墜者也今茲總譜成叙吾門譜作之由來並記顛末且爲後來者而叅考焉

光復四十年甲子臘月日

後孫炳兌

謹序

사는곳이나 하는일이 서로 다르고 틀이나 그러나 잇대의 조상께서 보실때에는 한결같이 동일한 후손이다 이른바 누나 하나도 다를바 없음이니 어찌 친하고 성을 이치있으며 어찌 후하고 박한 차이가 있으랴 아비는 아비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된도 의와 형은 형이며 아우는 아우요 지아비와 지어미되미 이계 사람의 의원이니 하늘이 다하드록 변동이 없음이다 글이 생긴 이래도 국가에서는 왕실의 계통과 크고작은 일을 글밭에 써두니 이른바 역사요 경고에와서 사가에 계통과 대소사를 글밭에 써두니 보첩이라 말한다 사가에서 근왕이나서 국가되면 보첩이 역사로 변하고 국가 망하여 사가 되면 역사의 쓰임도 보첩으로 바뀌나니 역사와 보첩은 국가와 사가의 한개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박씨도 신라때에는 국가에 실여 있으나 고려이후에는 가브에 실여있다 그러나 역사는 국민이 학교를 세워 익히도록하되 보첩에는 등한히하니 이는 이에 원천은 아지못하고 강과 바다만 알고저 함이다 원천대 우리 동종들은 나무에 뿌리있는데 뒤에 가지생기고 일이있으면 이 할아버지 있음으로 이 자손 있음을 알아야 할지니 이것이 사람의 윤리요 하늘과 더불어 변동이 없을지라 이제종보 이룩위지매 우리 종공의 보첩된 유래도 펴고 아울러 전말을기록하며 뒤 옛사람으로 참고케 함이다

광복 四拾年 갑자 첫달에 병래 삼가 서문쓰다

己丑舊譜序

我朴氏爲四門進士後者譜凡三作所謂
辛未譜庚戌譜己未譜是也今去己未己
三紀矣生卒與墳墓宜有續紀而況滄桑
貿遷他日未可知者乎歲戊子寓望文敬
公墓祀餞罷諸族會于三松齋相與謀曰
修譜不可不亟遂發文嶺湖收諸宗單子
釐爲五冊其視模大體悉遵舊譜付剞劂
閱二年告完豈非幸歟竊念所貴乎譜者
非徒記世系子孫序昭穆己也蓋欲使後
承考先德追遺烈有以自修也我密陽之
朴肇自新羅爲東方巨閥名德節義之士
磊落望相皆可以師範此後昆之不可不
知者也方遜志曰人善則門榮人惡則門
賤奉烝嘗禁芻非奉先之至也廣田宅致
富潤非所以世其家也凡我後承相與勸
戒念先祖德業功烈之盛篤學力行勉報
本之誠敦睦族之誼則吾家門祚之隆將

기축 구보서

우리 박씨 四門진사 공의 후예들이 보첩을 세번 하였으니 이른
바 신미보와 정승보와 기미보가 이이니 이제 기미년이 간지도 이
미 三기가 된지라 나고 죽고 또 묘소가 마땅히 계속하여 기록되
어야 하매 하물며 상견벽해의 변천이 뒷날을 알 수 없는지라 무
자년(一九四八年) 三월 보름에 문경공 묘사후 음복이 끝난후에
계축이 三중계에 모여 서로 의논하되 보첩을 불가불 빨리 하여야
한다 하고 공문을 영호남에 발송하여 계종의 단자를 모아 책다
섯권을 만드니 그 규모가 대체로 구보에 준한지라 인쇄 二년만에
완성하니 어찌 다행이 아니라 생각컨대 보첩이 소중함은 한갓 세
계와 자손의 서열 소목을 기록할 뿐 아니라 대개 후손으로 신덕
과 유열을 사모하여써 스스로 수신 수덕케함이니라 우리 밀양박
씨는 신라때에 시작되어 동방의 큰 족벌이니 이름난 덕인과 절의
있는이 고고한 자세로 다 가히 사범되니 이는 후예들이 불가불 알
어야 할 일이다 방손지왕 사람이 신하면 一문이 영화롭고 사람이
악하면 일문이 천하니 계사모시고 부모 봉양함만이 봉선의 지극
함이 아니요 전력이 많이 부자됨이 가성을 잇는 것만도 아니나
무릇 우리 후손은 서로 권하고 경계하여 선조의 공열과 덕업을
생각하여 잘 배우고 힘써 행하여 보본의 성의와 목족의 의를 두
려이하면 우리 가문의 부됨이 장차 무궁하리라 회고컨대 창식이
세상에 헛흔여 항상 스스로 그윽되게 신덕을 업고 외람히 보역을

引於無窮也顧如昌植蔑裂白首潦倒常
自悼其忝負先德猥擔譜役今於竣功之
日敢書其平日所愧於心者奉勉諸宗且
告後來者云爾

己丑小春之上澣

后孫昌植謹序

己未舊譜序

夫譜之爲言普也上續祖烈下貽孫謨旁
親九族自近而遠聖賢之道如斯而已矣
斯道也得於心而行諸躬不待於外也然
則先世之祖系也後昆之裕謨也九族之
派列也咸具於譜即其譜而思其道亦必
感於心而有補於躬行是古人之重譜牒
而不可忽也是故適追先休謂之孝也啓
佑後人謂之慈也惇宗收族謂之睦也尊
系統明昭穆辨宗支謂之典禮譜也者典
禮之所著而考慈睦之所資而行也然而
親親厚厚之道皆自我而先施之竊取水

담당하였다니

이제 증공하는 날에 감히 평일 마음에 부끄러운 바를

기록하여 계종을 면려하고 또 뒷 옛사람에게도 고하는

바이다

기록 소충상한 후손 창식 근서

기미 구보서

족보란 말은 넓인다는 뜻이니 위로 조상의 공을 잇고 아래로 자
손에게 모범을 끼침이 모든 일가에게 미치게 함이니 성현의 도이
같은 나라 이일은 마음에서 이러나 몸소 행하고 의처에 기다리지
않을지니 그러면 선세의 계종과 후손의 덕과 그 족의 파계가 다
보첩에 갖추었으니 그 보첩을 보고 그 도를 생각하면 반드시
마음에 감동되어 몸소 행함에 도움이니 이고인의 보첩을 증하여
기고 소홀히 아니함이니라 고로 선대의 미덕을 좇음이 효요 후대
사람을 열어줌이 자라하며 종의를 존독히 하고 친족을 가까이 함
이목이며 계종을 존중하고 소목을 밝히고 종지를 분별함을 전에
라 하나니 보첩은 전예의 본이요 효와 자와 무의 바탕의 행동이
다 그러나 친한이를 친히하고 후이한이를 후이하는 길이다 나로부
러 먼저 행하여야 할 바니 물과 나무에 대하여 계종에게 고하여
왈 나로 말미암아 위 근원의 명음을 알면 생각이 효에 있을 것이

與木勉諸宗而告之曰由余而知上源之遠則思有以孝焉由余而知下流之長則思有以慈焉由余而旁及知千柯萬葉之本乎一根則思有以睦焉既思之必行之勉焉日日孳孳雖不中不遠矣所謂行一物而三善皆得焉者惟此譜之謂歟吾譜之所以修也猗歟盛哉惟我東方之朴自新羅而始焉歷南解儒理景明諸王至八大君皆以分封之邑以爲貫鄉而密城大君第居其一遂爲東方之巨族牧隱先生所謂八家皆有其後而密城之朴尤著蓋自高麗泊于我聖朝名公巨卿道德忠孝之士相繼起而然也噫大君之後滄桑屢變世代浸遠而文獻無稽世系頗缺故各立中祖修譜而譜各不同勢固然矣良可恨也惟吾派譜宗黨則麗朝國子進士公爲中祖六傳至翊贊公諱仁幹五兄弟昭穆派系自此始分而往在庚戌始克合譜

요나로 말미암아 하류의 길을 알면 생각이 자에 있을 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결이나千지萬葉이 한백리에 근본함을 알게되면 생각이 화목에 있을 것이니 이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들부터 원히 하여 나날이 살려면 비록 적증치 않아도 멀지 않을 지니 하나를 행하여 세가지 선함이 가늘이니 이는 보를 말함이라 우리 보첩의 뒤음은 더욱 아름다우니 오직 우리 동방의 박씨 신라로써 비롯하여 남해왕 우리왕 경명왕등을 거쳐서 八대군에 이르러시다 분봉받은 고을로써 관향을 삼으니 밀성대군이 그 첫째 번서 열이라 드리어 동방거족이 되니라 목은 선생의 이른바 八가가 다 그 후손이 있으나 밀성박씨가 더욱赫赫하다 하니 대개 고려대로부터 이씨조선에까지 명공거경과 도덕충효의 신비 계속하였음으로 그렇다 하리라 슬프다 대군의 뒤로 세상이 여러번 변하였고 세대가 떨어져서 문헌상에 삼고 할 수 없고 세대의 계통이 많이 결함이 있어 각각 증조부려 수보하여 보첩이 서로 다름은 부득한 일이다 한심한 일이다 우리 파보의 종당은 고려국자 진사공으로 증조를 삼고 六전하여 익찬공 휘 인간 五형제의 소부과 파게가 이로써 비로써 나느니라 전번 정을년에 처음으로 합보하여

至于今七十年間邈然無修刊之役其於
 昔人更一二世輒增修之義相背馳矣且
 子孫散在畿關湖嶺者其麗不億而相去
 遙迥或前譜漏落而不相知或兵火之餘
 湮滅散亡而不相聞恬然如越人視秦瘠
 烏在其祖宗一視之本意乎况今衰季之
 世天地反易彝倫既斁人心陷溺和睦之
 誼都喪不於此時而收宗厚風則其近於
 禽獸必矣豈不慨然痛嘆哉去丙辰孟冬
 之月自本所宗中首發修刊之論則遠近
 諸宗如鼓應桴油然孝悌之心根於人性
 之本然者於此可見矣是歲仲春之月設
 譜廳于三水洞先兆下齋閣余雖翦劣廁
 迹譜所遂與族姪明植元植數三人收單
 而扶安宗人燾述高山學鎮比安宗人斗
 海甫三雅繼至叅考衆單昕夕團議敦事
 再閱歲而劄厥氏告功豈非曠世之希事
 乎嗚呼凡我同譜之人自今以往視遠愈

이제에 이르도록 七十年간에 막연히 수간한 일이 없었으니
 그 옛날사람들은 一二세대에 다시 수보종간한 뜻과는 서로 배
 치되며 또 자손이 사방에 흩어져 살아가서 그 수가 많지만 상거가
 멀어서 혹 전보에 누락되었어도 서로 알지도 못하고 혹 병화의 골
 에 종적이 없어서 서로 들은바 없어도 편안히 될나라 사람이 전
 나라 사람 마른것 보듯하니 어찌 조상의 한 자손인 본의가 되랴
 더욱 지금 세상에 천지가 반복되고 인륜이 어지러져서 인심이 흉
 흉하고 화복하는 의가 없어져서 이때에 일가끼리 단합하고 풍속
 을 후히 삼으면 금수와 같이 될지라 어찌 흥란치 않겠는가 전번 병
 진년十月달에 본소 종중으로부터 처음 족보를 간행하자는 논의가
 있어 원근의 친척이 북치는데 북채 움직이듯하여 유연히 효제의
 마음이 인성의 본연의 근본임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었다 이해
 중추에 보청을 삼수등 선영 아래 재각에 설치하니 비록 협소하고
 근색한 브소이나 족질 명식 원식등 수삼인이 수단을 하고 부인종인
 회솔과 고산종인 한진과 비인종인 득해씨의 삼인이 계속하여 와서
 여러 단자를 참고하고 조석으로 서로 상의하고 검토하여 득해를
 지내여서 인내가 이룩어지니 어찌 세상에 드문 조은일이 아닐까?
 오히려 무릇 우리 등보한 사람들은 이로써 먼 친척을 가까이

近視疎愈親非如前日之疎忽則孝悌仁
愛之心自然生忠厚敦睦之風自然行矣
非吾一門之良規古昔聖賢之遺謨嗟嗟
僉宗益加勉旃焉譜規則一依庚戌譜例
集成五卷別爲璿源錄一卷附于上系總
六局而至其先世官啣行蹟誤漏處間附
愚見添補余極知僭妄無所逃罪以俟後
來君子筆削之義

屠維協洽春正月下澣后孫演厦謹序

庚戌舊譜原序

惟我東方之朴有自羅祖而始焉歷南解
儒理諸王至八大君而分封之縣各以爲
貫鄉而密城大君序居第一遂爲東國之
大姓牧隱李文靖先生嘗云八家皆有其
後而密城之朴尤著盖自麗朝以來名碩
輩出忠孝文章爲世所推而然也嗚呼大
君之後屢經滄桑文獻無稽世次不明既

보고 성근사이를 치히하여 전일과 같이 소홀히 아니하면 호계인
애의 마음이 자연히 행하리니 우리 一門의 좋은 구슬일 뿐 아니
라 옛날 성현의 가르침이니 모든 종친은 더욱 힘을일이다 보의
구칙은 한결같이 정을 보체를 따라 五親으로 이루어지고 따로 선
원록 一권을 상계에 붙이니 총 六권으로 하고 신세의 벼슬과 함
자와 행적의 그릇된 곳은 간간히 나의 소견을 첨부하니 내 극히
참담하여 죄됨을 모면할 수 없으나 새 뒤에 오는 글자의 짚고 더
하는 병필의 의를 기다리노라

기미 춘정월 하한 후손 연하 근서

경을 구보원서

우리 동방의 박씨는 신라시조로부터 시작되니 남해왕과 우리왕
들을 거쳐서 八大군에 이르러 분봉받은 고을로 각각 관향을 삼으
니 밀성대군이 제일 형이니 밀성박씨가 동방의 대성이 되니라 무
은 이문정선생이 일찍 말하기를 八大군이다 후손이 있으되 밀성
박씨가 더욱 번창하다 하니라 대개 여조 이래로 유명현이가 많이
나고 총효공장이 세인의 포장한 바다 애타다 대군의 후예 여러차
레 세상이 변동되어 문현으로 삼고 치 못하고 새차가 불분명하여 증

失中祖之分派我朝以後雖或有譜牒之
記只錄其派祖故興湖禮安公宰邑時遂
使諸宗裒輯家乘刊出一卷譜即國子進
士公以下派系也其後嶺南宗人刊行聯
系大譜而列書十二中祖各系其派裔則
其次序昭穆之義煩淆而不可攷矣殆近
百有餘年而更無派譜則子孫之在於西
者不能識其東在於北者不能識其南親
親敦睦之誼自此而絕矣余嘗慨恨于中
矣昨年春金堤宗人首發合譜之論以爲
久遠之圖其可敬可尚也爾噫在昔歐文
忠蘇老泉各有世譜其年表禮宗例雖不
同皆足以考其世次矣蓋不知其世次則
無以知其遠近親疎之別本源所自出也
譬諸水與木其初一源一根而已源深而
派分根固而枝繁人亦何異於是其初一
人之身而分之也自兄弟而至無服之親
自此而漸遠則親盡情盡若路人然豈可

조의 분파가 밝지 못하고 이조 이후로 혹 보첩의 기록이 있으니
다만 파조만을 기록한지라 고인된 홍호에 안공이 고을 원님이었을
게 제종과 같이 가승을 모아서 한권의 보첩을 간찰하니 극자진사
공이하 파계이다 그 후에 영남종인이 계파를 이은 대보를 간행하
고 十二중조를 차례로 썼으나 각각 계출된 파예는 그 차서와 소
목의 의리가 번거롭고 어지러워서 가히 삼고치 못하는지라 근래
의 백년만에 다시 파보가 없었으니 자손이 서에 있는 이 등에서
사는 이를 모르고 북에 있는 이 그 남에서 사는 이를 알지 못하
여 친척을 친히 여기고 화합하는 의 꼬칠지라 내가 일찍 마음으
로 개편하니 작년 봄에 김계 종인들이 합보할 의를 발의하여서
오래도록 전하여 가기를 기약하니 가히 공경하고 반가운지라 옛
날 구문충공과 소로친이 각각 세보가 있었으니 그 년표와 종예의
예 같지 않으나 다 족히 깨 그의 세차를 삼고할 수 있는지라 대
개 세차를 모르면 그의 멀고 가까움과 친소의 구분과 근본의 클
차를 알 수 없는지라 불과 나무에 비유하면 그 처음은 한 근원이
요한 뿌리이나 근원이 깊으며 불결이 갈리고 뿌리 깊으면 가지성
하니 사람인들 이와 다르랴 그 처음은 한 사람의 몸이 나뉘리라
형제로부터 무부지친에 이르나니 이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친의와
정의 다 하여도 길지나는 사람보듯이 가히 소홀히 할 수 있으랴

以疎遠而泛忽耶然吾國子進士公後孫
蔓延於各道者不知其幾許而或湮滅而
無聞或流落而不知其處不得一一合族
同譜是可嘆也昨秋不佞先爲來到於左
相公貞齋公墓下譜所與本所宗人存恒
存燁甫善山宗人著萬甫及吾鄉數三宗
人團議敦事凡七更朔而剗厠氏告功此
豈非一代盛事耶嗚呼凡我同譜之人先
以孝悌相勗次以忠厚敦睦爲心母至如
前日之疎遠則其亦可嘉也歟

崇禎紀元後四庚戌正月日

後孫秀衡謹識

庚戌譜跋文

人家之有譜蓋古也夫氏族之蕃衍者必
須修譜而後考其世系之遠近昭穆之次
序而其在收宗族厚風俗之道爲一大關
楨則譜牒之於人其重且大顧何如也惟

우리의 극자 진사공 후손은 각도에 많이도 흩어져 살아서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며 혹 묻혀서 알 수 없기도 하고 혹 우리라 할하
여 사는 곳을 알 수 없어서 一一히 모아서 동보못함이 한스러웁도
다 작년 가을에 불초 내가 먼저 과상공과 정재공묘하 보소에 이
르러서 본소종인 존형 존엽씨와 신산 종인 기만씨와 우리 고을 구
삼종인들과 같이 서로 모여 의논하고 일을 연구하여 두루 七개월
을 거쳐서 인쇄되니 이어찌 一代의 청사가 아닌가 무릇 우리 등
보한 사람은 먼저 호계로써 서로 돕고 다음에는 총후 돈목함으로
써 마음을 삼아 전날과 같이 소원함이 없이하면 또한 가히 아름
답다 하리르다

승정기원후 四정승 정월 일 후손 수형 근지

경술보 발문

사람의 집안에 보첩 있음이 예전부터서이니 씨족이 번연한 이
들은 반드시 보첩을 한뒤에 그의 세계의 멀고 가까움과 소목의
차이를 고찰하여 그 종족을 거느리고 풍속을 후히하는 길이 한개
의 큰 빛장(關楨)이 되나니 보첩이 인간에게 중대함이 어찌 다
말하리요

我朴姓肇自新羅始祖王至于中葉有八公子分封而密城大君第居其一是爲密陽受貫之祖滄桑屢換文獻莫徵昭穆有闕支衍無稽良可恨也往在辛未興湖禮安公諱處厚氏正郎公諱壽能氏修譜時即以國子進士公爲中祖於吾爲二十三代祖也國子公以前則代系昭穆有多缺漏國子公以後則派源宗支昭載家乘至于麗季有諱華以密直副使上護軍致仕有五男皆登文科長諱仁幹翊贊功臣謚文敬次諱仁祉司設署令次諱仁杞左衛散員次諱仁翊入本朝議政府左議政不就次諱仁宇丹陽郡事吾宗之支嫡派源始分於此矣嗚呼密直公之餘蔭遺澤猗歟盛哉逮我聖朝名公碩儒前後相繼有若左贊成貞齋公諱宜中學問篤實文章典雅倡明道義始興程朱之學以至華人称海東夫子入享院宇郎將公諱撫謙以

우리 박씨는 신라시조 왕으로 부터 시작되어서 증엽에 이르러 八공자의 분봉이 있었으니 밀성대군이 차서로서 그 첫째이니 이게 밀양관향의 시조이더니 창상의 변천이 여러번 되어 문헌으로 증거할 수 없고 소목이 빠지고 많은 후손을 상고할 수 없으니 한스려운지라 먼저번 신미년에 흥호에안공 휘 처후씨의 정랑공 휘 수릉씨가 수보할 적에 곧 국가 진사공으로 증조를 삼으니 나에게 二十三대조 되는지라 국가 진사공 이전에 는 대수와 세계와 소목이 많이 결락되었으나 국가 진사공 이후는 파원과 증지가 소상히 가승에 실려 있으니 고려말엽에 휘 화가 밀직부사 상호근으로 치사하고 아들 다섯이 있었다 문과에 올랐으니 장자 휘는 인간이니 익찬 공신으로 시호는 문경이요 차의 휘는 인지니 사설서령이요 차의 휘는 인기니 좌위산원이요 차의 휘는 인익이니 이조에 들어 의정부 좌의정을 계수하였으니 벼슬치 않고 차의 휘는 인우니 단양군 사과 우리 종친의 지손과 께손의 파원이 비로써 나느워졌다 밀직공의 음덕이 아릅답고 성하드라 우리 성조에 이르러 평공과 큰 선비가 전후로 서로 있었으니 좌친성 정제공 휘의중은 학문이 독실하고 문장이 아름다워서 도의 교육을 밝히려서 처음으로 정자 주자학을 이르고 증국인이 해동부자라는 칭호가 있고 원우에 향사되며 왕장공 휘 위경은 고금부관으로 복별에 공이 있고 접하여 문학에 능하여 이름이 시책에 올라있고 부계학공 휘 인은 문장이 국가에 빛나고 왕가를 잘 도와서 금계후 좌친성과 성국관과 예문관계학이요 증증조에 청백리요 휘 열

司馬武弁北征有功兼通文學名載詩刪
副提學公諱訥文章華國碩輔王家及第
左贊成兩館提學中廟朝清白吏諱說四
長憲府五爲叅贊雅量坦夷人望翕赫謚
夷靖公進士龍巖公諱雲以松堂高弟心
學紫陽道契退陶孝友出天旌表門閭膺
享院宇洗馬公諱元忠以學行選爲世子
師傅退而不仕生員恒齋公諱灝喚醒堂
公諱演以龍巖公子薰陶庭訓造詣精深
訓導公諱興迪以文章德行選爲訓導而
卒自上特命禮葬叅奉九龍堂公諱頤專
心聖學屢徵不仕進士公諱石精壬亂倡
義殉節御賜號屈指堂叅奉健齋公諱遂
一壬亂遇敵不屈罵不絕口而殉節入享
祠廟翊衛司二憂堂公諱忠男律身精學
輸忠炳義副司果公諱時賢壬亂仗義戰
沒加平葬以衣冠兩西管餉使公諱筵及
第兵判玄溪公諱遜以沙溪門弟文學高

은 네 차례 헌부의 장이 되고 다섯번 참판되어 아량과 인망으로
시호는 이정공이요 진사 용암공 휘 응은 송당의 늙은 제자로 마
음으로 자양을 배우고 회계도은과 벗이며 효우가 출친하여 정문
짓고 원우에 중형하였으며 새마공 휘 원충은 학행으로써 친거하
여 새자 사복되었으나 사양하고 벼슬치 않았으며 생원 항재공 휘
호화 환성당공 휘 연은 용암공의 아들로써 가정교육에 따라 조에
가 깊고 홍도공 휘 홍적은 문장과 덕행으로 홍도에 천거되었다가
종함에 임금으로써려 책장하라는 특명이 있었고 참봉 구룡당공
휘 이는 성학에 전심하여 여러번 조정에서 불렀으나 벼슬치 않고
진사공 휘 석정은 임진란리에 창의하여 근절하여서 호를 글지랑
이라 어사하였고 참봉 진재공 휘 수일은 임진란에 적을 만나서 글
치 않고 근절고 근절하여 사옥에서 향사하고 의위사 二이당공 휘
충남은 자신을 단속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충의에 빛나고 복사과
공 휘 시현은 임진란리에 의병으로 싸우다가 가평에서 천몰하여
의관장을 하고 양서 관향사공 휘 측는 장원급제하여 병조판서 되
고 현계공 휘 서는 사계문인으로

明見重一世薪村公諱廷榮以壬亂殉節
配食忠烈祠野隱公諱文明韜晦林泉與
柳白石金鳳谷爲道義交叅奉德窩公諱
東溟以文章行望見重當世郡守一翁公
諱慶應及第教官眞靜堂公諱吉應文詞
實行卓冠一世叅奉臥遊堂公諱晉慶學
透性理從享院宇贈兵判忠壯公榮臣甲
子殉節特表旌閭洗馬醉石堂公諱悞以
逸筮仕莅郡而著治績吏判歸菴公諱權
兩朝碩望六省觀風執義雙溪公諱樞以
文學抄選南臺內隱堂公諱載理學高明
孝行卓異韜晦隱德徵辟不就若其文章
德行忠孝節義即吾宗之所世守而箕耳
裘耳前春自鄙宗先發合譜之論而事未
就緒矣何幸橫城秀衡氏輿望所重先到
譜所善山著萬甫橫城秀榮秀采履赫甫
亦繼至百年梓桑之鄉五朔花樹之會實
挽古稀事昕夕敦議始克完譜先世未遑

학문이 고명하여 一세에 유명하였고 신촌공 휘 정영은 임진관에
승경하여 충열사에 배향하여 향사받고 야은공 휘 문명은 하
향에서 숨어살며 유백석 김봉국과 같이 도의의 벗이 되고
참봉 안덕와공 휘 동명은 문장과 행실과 덕망으로 당대에
서 인망이 높고 근수 응공 휘 경응은 급제하여 교관되
었고 진정당 휘 길응은 문장과 사부와 실질적인 행동이 一세
에 으뜸이 있었고 참봉 와유당공 휘 진경은 학업이 성리에 득철
하여 원우에 종향되었고 증직병판 충장공 영신은 갑자에 승경하
여 특히 정려를 세웠고 세마 취석당공 휘 황은은 일로서 벼슬하
여 근수되어 치적이 현저하고 이조판서 귀암공 휘 권은은 조경
의 인재로서 六조판서를 하고 집의 쌍계공 휘 추는 문학으로써
남대에 천임되었고 내은 당공 휘 재는 리학이 고명하고 효행이라
이하여 숨어살며 홀로 수양하여 조정에서 기용하려하나 나가지
않으니 그 문장 덕행과 충효절의는 곧 우리 종종의 세대로 지켜
나온대 물려나온 일이다 작년봄에 이곳으로부터 먼저 함보할 것
을 발의 하였으나 일이 잘되를 잡지 못했으니 다행히 회성 수형
씨 여망에 따라 먼저 보소에 왔고 신산 기만씨 회성 수영 수채
이형씨등이 계속하여 와서 수백년의 고향에 五개월간의 하나가
리의 모임이 실제로로부터 드문 일이다 아첨거녀으로써로 상의
하여 능히 보첩을 완성하니

之舉果有待於今日而然耶凡吾同譜諸宗篤生孝悌之心而益勵敦睦之風則庶不負修譜之意云爾

同年 月 日 後孫存恒 存燁謹跋

庚戌舊譜跋文

昔張文康公旅軒先生撰吾十世祖叅奉健齋公墓誌而銘曰朴出羅祖寔天攸錫分封列境密派最奕斯言也蓋與李文靖公八君皆有后密城尤著之言相表裡而前後諸老先生信筆斷案正俟百世而不惑者也夫貫密之族肇羅迄麗洎入本朝鴻匠碩輔名儒宿德林立松挺蟬聯鳳峙蔚然爲東方大姓而粵在分封以後金火屢遷文獻斷爛世次昭穆尚矣無稽攷諸溯源錄中亦未得其詳惟吾四三家宗黨則自麗朝國子進士公爲中祖七傳至翊贊公五兄弟而宗支之分自此始焉矣挽

그전부터 하지 못한 일을 오늘로 기다렸던가? 우리 동보한 사람들은 효제하는 마음을 내어서 더욱 화복하는 풍속을 기르면 그 보한 뜻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동년 월일에 후손 존항과 존열이 근발하다

정술년 구보 발문

옛적 장공강공 여현선생이 우리十世조 참봉 전재공 묘지를 쓰고 명하여 말하되 박씨 신라시조로 시작하니 이는 하늘이 준바이다 여러 고을을 나누어 봉군하니 밀양이 제일 현현하다 하니 이 말은 이 문정공의 八군이 다 후에 있으나 밀성이 더욱 현저하다는 말과 같으니 전후의 모든 선생의 절정적인 필법이 진 후세에 와서 드물림이 없다 모든 밀양관향인 일가는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고 이조에 이르도록 큰 벼슬과 큰 신비와 큰 덕있는 이들이 슬에 나뉘서 뜻하여 동방의 대성이 되니라

처음 밀성분봉이후에 난리를 여러번 겪어서 문헌이 꼬치고 세대와 소목이 더러는 삼고할 바 없어서 여러 문헌중에 고찰하였으나 그 자세한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우리三四가의 일가들은 고려조의 국자진사공을 증조를 삼고 七전하여 익찬공 五형제에 이르러 종가와 지손의 분파가 이르부터 시작되었더니

近以來門運否替碩德晨星簪纓之家世祿不及道義之門型範見忝文章之後根銀不辨且其散在畿關湖嶺者相去遙迤不省某家之爲某派某派之爲某系而殆若路人然以祖宗一視之意推之則烏在其親親厚厚之道耶若昔賢人君子懼夫後之人愈遠而愈疎也爲著譜牒之法而收宗厚俗程夫子有訓昭姓合族張橫渠有誠則氏族之有譜者烏可己乎前春自金堤宗中首發派譜之論承領以還不覺衽歛起敬蘇老泉所道孝悌之心油然而生者豈非以是耶橫城秀衡氏即東道之望也宗議所歸用是年仲秋之初到金堤楸下與宗人存燁甫經紀譜事而書眎鄭重此吾宗曠世稀事繼以菊月之晦陪單跳蹶厠迹譜所不棄湔劣委以攷整之役盖累辭而不獲遂與橫城秀榮秀采履赫甫三雅叅考衆譜謹加釐正三閱朔而始

근자에 와서 문음이 비색하여 석덕있는 이가 드물고 잠영세가에 늙
이그치고 근고 어머니는 정히래후로 비김씨(효공왕의 딸)를의 성왕
후 로봉하드의 의 문중에 모범될게 없으며 문장의 후예가 근자와은
자를 분별 못하고 또 경기와 관등과 호남과 영남과에 산재하여 상거
가 멀어 뒤집이어던 과임을 몰라서 자못질가는 사삼보듯하나 그리
나 조종의로서 후손을 불때는 다같은 자손이니 어디에 더 친하고
더 후하리 따로 있으리요 옛적 현인근자들이 뒤 사람이 더 오래
되면 더욱 소홀해짐을 염려하여서 보첩법을 작하여 종족끼리
모여 풍속을 후히함이 정복자의 훈계요 성을 밝히고 일가를 모음
이 장횡거의 경계이니 씨족의 보첩이 어찌 가히 말리요 작년봄에
김계 종중에서 파보를 하자고 논의되어서 승낙하고 돌아와서 공
경지심이 생기게 되니 소로천에 이른바 효계의 마음이 우연이 생
긴다 함이 어찌 이를 이름이 아니라 형성 수형씨는 강원도에 명
망이 있다 종의에 따라 이해 가을에 김계 선산하에 이르러 종인
존엽씨와 같이 보사할 것을 기별하니 글 뜻이 정중한지라 이는
우리 종중에 전에 없는 일이라 九月 그믐에 수단을 모시고 보소
에가서 사목에 임하니 종열함을 버리지 않고 교정의 책임을 주어
서 어쩔수 없이 드리어 형성의 수영 수채 이형씨등 세분과 여러
보첩을 참고하여 삼가히 정정하여 드개월이 지내어서 비로써

克成編總爲五局凡我世派之久近昭穆之序次自是而開卷瞭然矣譜規則一依禮安公單卷凡例而間以添補愚見極知猥踰無所辭責若其筆削大義以俟後之君子

同年 月 日

聞齋 著萬謹書

辛未舊譜序

夫人之氏族本乎一源而分爲萬派不有以作譜將何以別宗枝而明親疎合其睽而致其同耶以故古之君子甚重之更二三世輒增修焉觀於蘇老泉及張谿谷之自叙譜可知矣余密城朴姓出自新羅至於今累千年爲昴雲者不翅繁衍或有刊行譜牒之家而終不能上繼於始祖下別於分派惟記其系籍可攷者而始焉故譜各不同勢固然矣余家自麗朝國子進士公三傳而至大觀殿直公因崔拙翁誌文

한편의 보첩이 되니 총 五권이 라 무릇 우리 세파의 멀고 가까움과 소목의 차서가 이로써 책의 열면 一목 요연한지라 보첩의 구성은 한결같이 예인공 단권 보첩의 법제에 따르고 간혹 내 뜻을 첨복하니 극히 의람되어서 각 지참을 면할 수 없으나 그 대의의 더쓰고 짚음은 뒷 근자를 기다리는 바이다

동년 월 일에 후손 기만 근서

신미 구보서

무릇 사람의 씨족이 근본은 한 근원이 나 나그어 만파되니 보첩을 만들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종지를 구별하며 친소를 밝기어서 그릇됨을 합하여 알게 하리요 그러므로 옛적에 근자가 심히 소중히 여겨二三세만 지나면 빈번히 수보하였다 소로친과 장계곡의 자서보한것을 보편 가히 알리라 우리 밀성박씨는 신라로부려서 작하여 지금까지 수천년간 후손된 이들이 많을뿐만 아니라 후보첩을 간행한 집이 있어드 능히 상계를 대어서 아래로 분파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직 그 계적의 삼고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되고로 보첩이 각각 잘지 않으니 그 형수밖에 없다 우리집은 고려조국자 진사공으로 부려 二견하여 대관전직공에 이르니 최충을 지문으로 인하여도 대수가 자못 자세하여 의심할 바 없는지라 나의 종부판서 귀암공이 일찍 보첩 편수에 뜻을 두었으나 공부가 너무

代數頗詳無可疑余之從父尚書歸庵公
嘗有意於哀輯而顧公務執掌未可纂錄
遂屬宗人正郎壽仁甫而代爲之壽仁甫
力於搜訪僅成草譜一冊而忽傾逝乃後
堂兄牧使諱昌厚公又托正郎子進士東
維俾完先事而東維厄於困窮雖用志勤
渠而迄未就緒矣處厚忝茲嶺縣不揆貲
力之無腆將欲收拾刊布以闡歸庵公遺
志告于諸宗使各書致家乘較諸正郎公
父子草譜略有誤處而一切依其本孫錄
送者苟不信其嗣續之言而欲誰信哉乃
庀工登梓印出若干本分藏于諸家夫以
余之不敏竊自附於古人合睽之義而殫
心於此然茲事既重且大而特慮久益遷
就卒於遂已故殆未免凌遽爾乃其訛舛
鑒失計心多矣覽者或能姑恕而申加添
修則幸執大焉再從壽能甫遠來相守克
有功於校讐之役爲可尚矣

바빠서 편지 못하고 드리어 일가인 정랑 수인씨에게 부탁하여
대리케 하였더니 수인씨 애써서 수집하여 겨우 일책의 보첩을 초
하고 작고하니 나중에 후당형 목사 휘 창후공이 또 정랑의 아들
진사 등우에게 아버지일을 원성토록 하였으나 등우씨 곤궁에 빠
져서 비록 마음은 간결하나 마침내 완결치 못한지라 처곡 내가
이 영현에 와서 힘에 벅찬일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장차 수습하여
간행반포하여 귀암공 유지를 밝히고 모든 일가에게 고하여 각각
자기 가승과 정랑공 복자의 초보와 비교하니 약간의 잘못된 곳은
一체 그 본손의 기록하여 보낸 것에 따르니 진실로 그 직접 후손
의 말을 믿지 않고 누누를 믿으리요 기구를 갖추어 인쇄를 하여
약간을 제가에 나누어주어서 소장케 하니라 나의 별민으로서 고
인의 합귀의 뜻에 맞도록 하려고 마음을 썼으나 그러나 일이 중대
한지라 특히 오래 전할 것임을 생각하였으나 말했던 내가 마쳐야
할 것임으로 자못 급히 서드려서 잘못되고 빠르린곳이 생각전에
 많을지라 보느니들이 후 능히 용서하고 더 보래여 수보하면 다행
하다 하겠다 재종 수능씨 멀리와서 지켜 앉아서 능히 교정하는데
공이 크니 가상하도다

崇禎甲申後百有八年辛未八月 日

國子進士府君十九世孫

禮安縣監處厚謹跋

송정 갑신후 百八年 신미년 八月 一日

국자 진사 부군 十九세손 예안현감 처후 근발

密陽朴氏四門進士公派大同譜

施做—讚行—彥孚—
義臣

中 祖 元 원 世德編 見

麗朝四門進士一云
國子進士墓在密陽
貴名洞失傳遺趾在
豐角花山從享沃川
遠德祠

고려조에서 사문진사
또는 국자진사라 함
고유지는 풍각화산
에 배향되었다

配 鶴林金氏 혹은 배
設壇于全北金堤白
山面三水洞

自公以下五位與判
圖摠郎諱仁杞同設

誠 皎然—奇輔—洪昇—

華

화 上 見

元憲宗壬子生 通

憲大夫密直副使

上護軍致仕 追

封三重大匡僉議右

政丞判典理司事

以忠孝見稱 後至

元二年丙子卒 享

年八十五 墓 長

湍大德山 感恩寺

始祖 四十世
中祖 二 世

子 皎然 교연

四門博士
사문박사다

모는 밀양귀명동에 있
에 있으며 옥천원덕사

위는데 김씨라 한다

圖摠郎諱仁杞同設

始祖 四十五世
中祖 七 世

子 仁幹 인간

忠肅王庚子 文科

文閣 直提學 畫

漢城尹 從王弟入

敬子孫 居中國云

配閔氏 父慶生

고려 충숙왕경자

조 을묘년(서기

기록하였다 직

를 지켜 익찬공신

四十一世
三 世

子 奇輔 기보

大觀殿直 以中軍
錄事 死於國事

贈僉知政事 見節
義錄及麗史

대관전직이니 중
근록사로서 국사
에 근사하여 첨

지정사를 추증함
결의록 및 고려
사에 사실이 기
록되어 있다

四十六世
八 世

子 洪昇 홍승

登第 又中 乙卯

誠秉義 翊贊功臣

中國 爲元世子 師

事載麗史 李益齋齊

賢 稱其忠孝

(서기 一三〇〇년)에

一三一五) 과거에

보문각제학으로 충

광정대부에 봉하

四十二世
四 世

子 洪昇 홍승

衛尉主簿同正 追
封衛尉寺丞

配竹山安氏 父克見
며슬이 위위국부

증정이니 위위시
승에 추증되었다
배위는 즉신안씨로
부는 극견이다

應學試魁錄 以 寶
匡靖大夫 僉議評理

四十七世
九 世

子 誠 함

檢校軍器監 追封
朝請大夫 禮賓尹

知閣門事

配陰平郡夫人 陰竹

安氏 父挺河

검교군기감을 지

내시다 조청대부

예빈을 지합문사

에 추봉되었다

배위는 음평군부인
음죽안씨인데 부
는 정하이다

四十三世
五 世

子 華 華 見下

追封 禮賓尹

陰竹

조청대부

지합문사

四十八世
十 世

子 華 華 見下

追封 禮賓尹

陰竹

조청대부

지합문사

에 추봉되었다

배위는 음평군부인

음죽안씨인데 부

는 정하이다

四十四世
六 世

子 華 華 見下

追封 禮賓尹

陰竹

조청대부

지합문사

四十九世
十一 世

子 華 華 見下

追封 禮賓尹

陰竹

조청대부

지합문사

에 추봉되었다

배위는 음평군부인

음죽안씨인데 부

는 정하이다